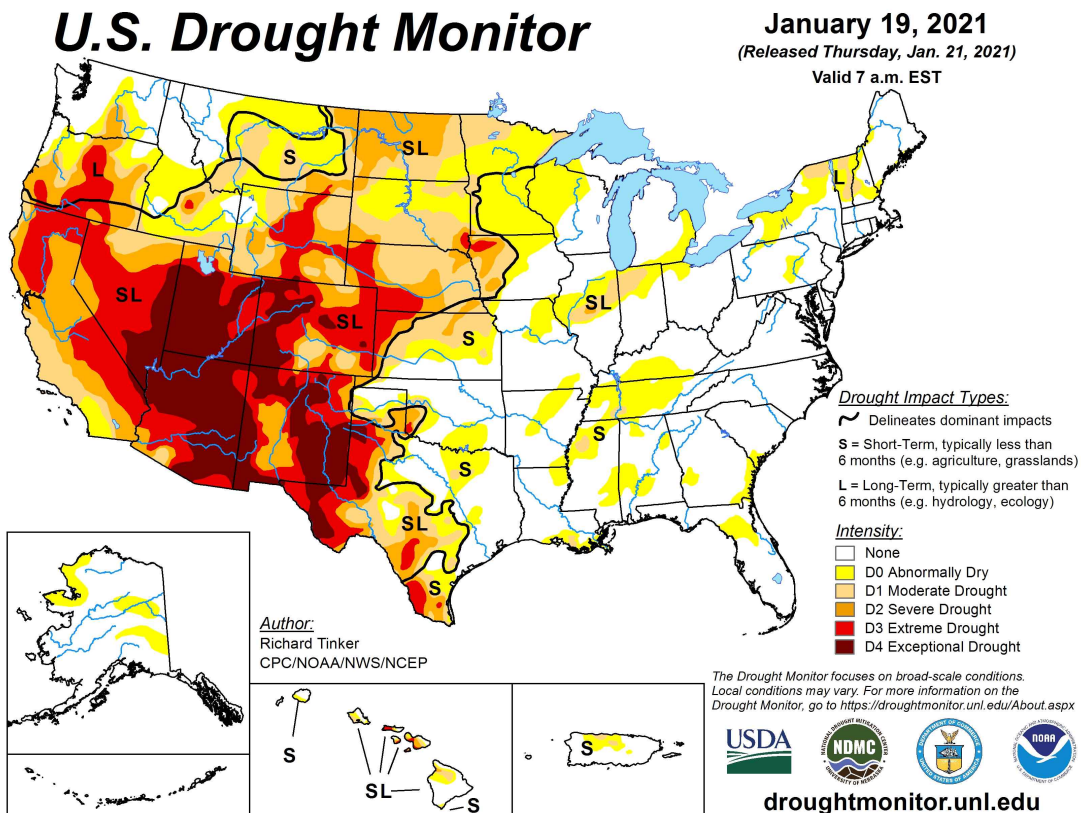


1월 2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8, No. 4)

□ 미국 기후 현황(1/17~1/23)

캘리포니아, 그레이트베이슨 및 남서부 전역에서 서늘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전의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밀어내었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서는 폭우가 진정되었다. 평원과 중서부의 넓은 구역을 포함해서 국내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에는 강수가 거의 없었다. 건조한 날씨가 동부의 많은 곳으로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남부 전역에서는 주 후반에 어느 정도의 비 (지역적으로 2인치 이상)가 내렸다. 그러나, 비가 내린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앨라배마 중부와 남부까지 이어지는 작은 지역에 국한되었다. 북부의 따뜻함이 최근 몇 주와 비교해서 그다지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국내 대부분이 계속해서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경험했다. 평원의 넓은 구역들과 멕시코 만 서부 지역에서 미시시피 계곡 하부까지 여전히 여러 지역들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10° F 높았다. 평년보다 서늘한 조건의 포켓들은 로키 산맥, 남동부, 태평양 북서부 및 중서부 상부에만 있었다. 하지만, 한 주가 진행되면서 현저하게 서늘한 공기가 서부에 퍼졌다. 영하의 기온은 대부분 로키 산맥과 노스 다코타와 미시시피 계곡 상부에서 뉴잉글랜드 북부까지에 있는 북부에 나란히 있는 주들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였다.



□ 농업 현황 요약 ()

: 내용없음

□ 세계 기후 현황(1/17~1/23)

■ 유럽: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최근의 추운 기간을 대체하면서 불안정한 날씨가 만연했다. 일련의 요란이 유럽 북부, 중부, 서부 대부분에 계속해서 비와 눈 (10~50 mm 액체 등량, 산악 지역은 지역적으로 더 많이)을 내리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분 공급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반휴면 및 영양기 겨울 곡류 작물들에게 - 대륙 나머지에 있는 휴면기 겨울 작물들은 물론이고 - 계속 유익했다. 그러나 다뉴브 강 계곡 하부는 강수가 그냥 지나쳤는데 이것이 최근의 과도한 습윤 (30일 강수총량이 평년의 200~500%)에서 좋은 휴식기를 제공해주었다. 지난 주의 추운 기간 이후에 7일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평균 기온은, 유럽 북동부에서 질질 끌었던 쌀쌀한 날씨 (평년보다 최대 5° C 낮음)를 제외하면, 평년보다 2~4° C 높았다. 독일 남동부에서 발트해 국가들까지는 여전히 얇은 눈 덮임이 남아 있었지만, 이 온기가 대륙의 중부와 동부에 덮여 있었던 눈을 많이 녹였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따뜻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어 면화와 수수의 발달을 도와서 이 작물들의 잠재 수확량을 더욱 올려주었다. 이 비는 주요 여름 작물 생산 지역에서 비교적 널리 퍼져서 대부분의 지역에 15~50 mm의 비를 내렸다. 일주일 동안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 C 낮았지만 일간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높은 20도대와 낮은 30도대 사이에 있어서 작물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 아르헨티나: 지난 주의 호우 이후에 대체로 건조하고 서서히 따뜻해지는 날씨 덕분에 중앙 아르헨티나에서는 여름 곡류와 유지 작물들의 빠른 성장이 촉진되었다. 1월 17일에 마지막으로 한 차례 가볍거나 적당한 소나기 (대체로 10 mm 미만)가 내린 후에 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코르도바, 산타 페 및 엔트레 리오스를 포함한 남부 농업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배하였다. 주말에는 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30도대 (섭씨)에 이르렀다. 살타와 코르도바 북부에서 동쪽으로 코리엔테스 전역으로 주초에 총 10~50 mm의 상당한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비슷한 조건들이 더 북쪽으로 퍼져갔다. 또한,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 C 낮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21일 현재 옥수수과 콩이 각각 96% 및 99% 파종되었는데 두 작물 모두 작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였다. 면화 파종은 밀과 보리 수확처럼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기 파종했던 옥수수와 대두는 생식기와 종실비대기를 지나 진행하고 있었다.



■ 브라질: 브라질의 많은 곳에서 지역적으로 강하게 내린 소나기가 미성숙 여름 작물들을 위해 적시에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가장 강한 비 (5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가운데 얼마가 남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체로)에 집중되었는데 이 지역의 일부는 재배철 내내 장기간 건조한 경향이 있었던 곳이다. 이 수분이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특히 시기 적절했는데 이곳의 농민들은 벌써부터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보고한 바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1월 21일 현재 대두는 47%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조기 파종한 옥수수 작물은 이미 18%가 수확되어 그 수분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파라나에서는 1월 18일 현재, 대두와 첫 작물 옥수수의 각각 91% 및 72%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 중에 있었다. 더 북쪽으로는, 마토 그로소와 고이아스 서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 바히야 서부의 많은 곳들을 포함하여 - 토칸틴스와 주변까지 중간 및 강한 비 (25~100 mm)가 퍼졌다. 비록 재배기 상으로는 늦었지만, 마토 그로소의 작물들은 이번 재배철에서 파종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전히 이 수분의 혜택을 받았을 수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대두 수확은 늦게 시작되어 1월 17일 현재, 평균 약 5% 대비 1% 미만이 수확되었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그 비는 기온을 더 계절적인 수분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어 낮 최고 기온을 낮은 30도대 (섭씨)로 붙잡았다. 예외적으로 이런 유리한 강우가 내리지 않은 곳은 미나스 제라이스와 상 파울로 북부였는데 이곳은 계절을 벗어난 건조 (대체로 10 mm 미만)가 미성숙 옥수수, 사탕수수 및 커피에게 필요한 수분을 감소시켰다.